제일 큰 형통과 제일 큰 불통

(예레미야 12:1~17)

1.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2.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5.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6.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제일 큰 형통과 제일 큰 불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제일 큰 형통과 제일 큰 불통'
1~2절은 예레미야가 악인이 형통한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6절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장면을 상상해봅니다.
'해머던지기'라는 운동 종목이 있습니다. 쇠붙이로 만든 7~8kg정도 되는 공이 쇠줄에 달려 있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선수들이 원 안에서 네다섯 바퀴 돌면서 멀리 던지게 됩니다. 고대 아일랜드에서 전차바퀴를 던지던 경기가 해머던지기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심력입니다. 쇠공이 달린 줄 끝의 손잡이를 붙잡고 몸을 회전시키면서 원심력을 키워 던지면 무려 80m 이상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보통 4~5회전을 하게 되는데 2~3회전 이상이 되면 강한 원심력을 이겨내기 위해 몸은 거의 눕듯이 뒤로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원심력을 만들어 낸 후에 공을 날려 보냅니다. 공을 날려 보낼 때의 속도는 시속 11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해머던지기가 '제일 큰 형통과 제일 큰 불통'이라는 제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형통이 한 가지 있고 제일 큰 불통도 한 가지 있습니다. 제일 큰 형통을 이루게 되면 이후로는 형통과 불통을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형통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불통을 이룰 때에는 형통하면 할수록 비참해지는 이상한 역설이 나타납니다. 차라리 불통으로 이어지는 편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 나타난 형통과 불통의 예시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해머던지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것은 불통일까요? 형통일까요? 혹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과 로마 감옥에 갇혔던 것은 불통일까요? 형통일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불통일까요? 형통일까요?
모두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형통을 이루고 난 후에 나타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일 큰 형통 뒤에 이어지는 형통 때의 특징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의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과 같은 복지의 삶이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일 큰 형통과 제일 큰 불통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갈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늘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삶은 평안하기만 합니다. 또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절을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한편 2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에,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형통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앞서 말씀드린 백성의 지도자들이며 또한 이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성경의 앞선 인물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의 탄식을 보면 2~3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릴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욥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12장 6절을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황당하고 절박한 심정이 되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

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과 환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 답을 주십니다.
5절을 보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때에 예레미야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보행자 수준인데, 앞으로 닥칠 고난은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심한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말인데 이러한 해석은 초점이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의 초점은 자신이 받는 고난보다는 악인이 형통한 이유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드신 비유를 다시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보는 악인의 형통은 보행자가 평탄한 길을 걷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냐? 앞으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이 더욱 네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가속도가 붙은 악인의 형통이 펼쳐질 때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 선민이 망하기까지는 40년이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악인으로 보았던 이들의 형통이 극에 달하리라는 것입니다.
또 5절의 하반부를 보면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아직은 악인의 형통이 예레미야의 삶을 침범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윽고 홍수가 주변을 삼키듯이 악인의 형통이 편만해질 때에 예레미야는 외톨이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레미야에게는 동조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응원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가족들조차 예레미야를 배신하고 외톨이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벌써 힘들어하면 그 때에 어떻게 견디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고, 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악인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이면서도 악인이 된 자들의 정의입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가까이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장 밀착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본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상태가 가장 큰 불통의 모습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바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고 믿어지는 우상이었듯이, 이는 곧 선민들이 마음으로 풍요와 다산을 섬기게 되었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 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을 보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 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이 사자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불통의 특징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풍요와 다산을 담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불통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는 놈의 목소리가 마음에 울리게 된 것입니다. 사자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음에서 '나 놈 목소리'가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최고 존재입니다. 이렇게 불통한 자들이 스스로를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내 생각이 최고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뜻에 따라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싫으시면 바알을 섬길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해하시는커녕 그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세상일이 성취되도록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지금 악인에게 주는 형통은 보행자가 걷는 수준이고,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은 더 큰 형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되어버린 선민들을 그 원수에게로 던져 버리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부자 되겠다는 생각, 부흥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선민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사자의 소리입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따르지 않으시려거든 조용히 계시라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는 이들의 악을 참지 않으시고 아예 원수들에게 던지시기 위해 오히려 그들을 더욱 악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지금 최대의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이들을 따르며 더욱더 풍요와 다산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악행에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 선민들을 던져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해머던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머던지기는 한 바퀴에서 두 바퀴로 회전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원심력이 강해집니다. 세 바퀴째에 더 커지고 마지막 네다섯 바퀴째에 이르러서는 원심력은 선수가 버틸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원심력이 그대로 직선 운동의 가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의 원심력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제일 큰 불통을 고집하고 유지하는 선민들을 완전히 던져버리시기 위해서 원심력을 더해 가십니다. 그들의 불통에서 비롯된 표면상의 형통에 가속도를 붙이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깝지 않은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형통은 가속화되면 될수록 세상에서 가장 불길한 조짐입니다. 제일 큰 불통은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불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만 돌이킬 기회라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만 실패하는 줄로 알았더니 이제는 몸까지 아픕니다. 남들은 안 걸리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불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불통한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생각만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나의 손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해머를 던지기 위해 원심력을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한 바퀴 째, 두 바퀴 째 점점 원심력은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윽고 네다섯 바퀴째를 지나게 되면 손을 놓으실 것이고 원수를 향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기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깨우침을 주시려 말씀하셨고 징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돌이키시고자 고군분투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기어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에 모시는 제일 큰 형통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크게 울리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을 마음에 담으면 내 생각과 판단이 생깁니다. 마음에 배우자를 담는다면 영으로써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나의 판단과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나의 바라는 것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기에 불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불통하다면 낫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향해 가지는 기대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돈도 많이 벌어오고 여행도 가자는 대로 다 가고 기념일마다 챙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큰일 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해머처럼 던지시려고 돌리고 계신 것

입니다. 가장 불길한 조짐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큰 형통을 이룬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제일 큰 형통은 마음의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되어왔습니다. 악인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입니다. 의인은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이 마음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큰 형통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 생애의 사전에서 형통이나 불통과 같은 단어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붙들고 가시게 됩니다. 즉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분께서 결정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해 누가 형통하다 아니다 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통으로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불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것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님의 교회를 잔멸하려 하였습니다. 살기등등해서 교회에 압박을 가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심리학자들은 바울에 대해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다메섹 사건 이전에 이미 스데반 집사의 순교현장을 보고 그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큰 얼음 덩어리에 바늘을 박아 넣으면 금이 쩍 갈라지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얼음장 같은 사울의 마음에 이미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바늘이 박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바울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수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 집사님 자신도 죽는 순간에조차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이 용서 받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큰 형통을 이룬 사람에게는 불통이 없습니다. 혹시 돈이 안 벌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불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돈이 안 벌리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집사님 두 분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한 달 뒤에 7,000만 원을 더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냐고 여쭈었습니다. 아파트가 팔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 더 받은 사람의 아파트가 팔릴 때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7,000만원을 주시고자 했다면, 애초에 그 거래를 되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

시지 않는 이유는 7,000만 원이 집사님에게 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형통을 이룬 사람의 돈 계산법입니다. 돈은 무조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안 될 돈이라면 주시지 않아야 좋습니다. 으레 돈은 많아야 좋다고 여기지만 큰일 날 생각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업을 했는데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나한테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제일 큰 형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제일 큰 불통을 맞이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따르며 불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제일 큰 불통을 유지하는 중에 세상적인 형통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해머던지기가 시작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 모시는 제일 큰 형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안 돼도 형통이고 돼도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통하기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마귀의 소원인 제일 큰 불통을 끊임없이 부수게 하여 주셔서 제일 큰 형통을 이루어 참 형통뿐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